



# 環境保全은 우리生存權과 직결 환경오염방지위한 根本施策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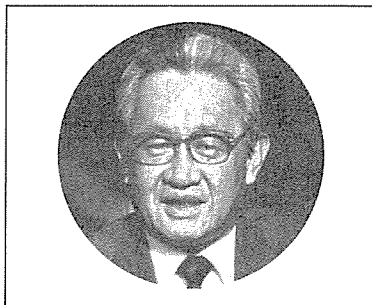
『國家發展에 있어서 經濟開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國民福祉향상이며 특히 사회복지중에서도 環境保全, 즉 大氣保全은 우리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韓國大氣保全學會 제4대 회장인 盧在植 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수석전문위원)는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급상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盧회장은 오늘날에 있어서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혁신은 산업경제를 급속도로 성장시킨 반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오염의 악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함으로써 인간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환경오염문제는 局地的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地球전체의 문제로서 인류를 포함한 동식물, 무기질, 에너지 등의 상호작용 및 순환과정에서 인류가 어떻게 하면 보다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生存과 직결되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盧회장은 산업혁명이후 세계 도처에서 그 度를 더해온 환경오염문제는 최근 산업이고도화되면서 양적·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30년간 工業化를 위주로 한 경제개발정책의 추진으로 국민생활의 경제적인안정과 기반은 어느 정도 다져놓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업화추진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뒤따르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소오재원의 제약등으로



盧在植 회장

충분히 대응해 오지 못한채 해를 거듭해 온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환경보전대책이 그나마도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큰 발전으로 가져온 것은 '88올림픽이 계기가 되어 대기오염의 低減대책, 폐기물처리대책, 하천개발, 하수처리시설의 대폭확대등 최근 급속한 진전을 보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이 파생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당국에서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고 환경관리공단을 발족시키는등 환경보전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와 무연휘발유의 생산 보급, 정유회사의 탈황시설 설치, 수도권 쓰레기의 대단위 해안매립방안의 추진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다.

세계 각국이 거의 공통된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아황산가스(SO<sub>2</sub>)를 비롯한 분진, 질소산화물(NO<sub>x</sub>),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옥시탄트등이 주요대기오염원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아황산가스오염의 주된 배출원이 일반가정의 난방용으로 쓰이는 연탄, 대형건물의 난방용과 산업발전용 병커

C油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난방용 연탄인 무연탄이 전체 아황산가스 배출량의 7할 정도를 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요』

이밖에도 각종 산업활동, 비포장도로, 저탄장, 쓰레기매립장등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한 대책과 함께 주로 자동차배기가스로 공기중에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등이 햇빛과 작용하여 光化學스모그현상을 일으키는 옥시탄트문제, 가정에서 버리는 生活下水와 공장에서 버리는 工場廢水등으로 인한 水質오염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각종 대기오염원을 최소화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함께 현재 GNP의 0.04%에 불과한 환경보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어도 GNP의 1~2%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盧회장의 주장.

『과학기술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미약한 실정에서 환경보전분야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요. 하지만 앞으로 불원간 닥쳐올지 모르는 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투자의 확대와 환경과학기술의 개발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회에서 우리 나라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오염원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각종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인체 및 동물영향분과위원회를 비롯 △식물영향 △실태와 해석 △확산과 稀釋 △방지기술 △교통공해 △분석기술분과위원회등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국제대기오염방지단체연합회(IUAPPA)에 회원으로 가입한지 3년만에 상임이사국으로 피선되는등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오는 91년도에 제2차지역회의 및 98년도 예정인 제11회 세계청공회의(11th Worth Clear Air Congress)개최를 권유받고 준비중에 있다고 밝힌다.

『이 지역회의는 IUAPPA 상임이사회를 동시에 개최하므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참가는 물론 美·日·獨·佛등 13개 상임이사국이 참가하는 범국제적인 학술회의니만큼 이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보전대책을 위한 최신정보수집은 물론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盧회장은 이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오염방지대책을 위한 현안문제를 토픽으로 선정하는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가 다루어질 계획이어서 우리가 갖추지 못한 애로기술에 대한 기초지식의 습득은 물론 선진기술교류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학회가 83년도에 설립되어 아직까지는 요람기라고 할수 있으므로 회장 재임기간동안 미약한 기반구축에 힘써 나갈 작정입니다』 이와함께 연2회 발간하던 학회지를 올해부터 季刊으로 증간하고 세계적인 저널로 각광받을 수 있는 학회지가 되도록 영문초록도 삽입할 작정이라고.

또한 우수논문의 발굴을 위해 우수논문발표자에 대한 시상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통해 국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환경보전문제는 정부나 어느 특정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각 가정에서부터 산업현장에 이르기까지 대기오염원의 방출량을 최소화시키려는 국민각자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盧회장은 우리나라가 大望의 21세기에 이르러서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서 선진복지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염원을 안고있는 만큼 복지사회의 기본요소인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보전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 記>